

‘내가 있다’라는 생각 버려야 ‘중도’ 체득

봉은사 선교육 대법회 지상 중계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7월 8일 봉은사 법당에서 개최된 대법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고우 스님의 ‘중도’를 주제로한 법문을 들으며 불자로서 마음을 새로이했다. 법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했다.

무더위가 깊어가는 7월 8일 법당에서 고우 스님의 <서장> 강의 아홉 번째 법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 고우 스님은 “반복되더라도 중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중도’를 거듭 강조한다”며 “깨달아 간다는 것은 중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사람들은 공익을 먼저 생각하면 개인의 이익이 손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전체의 이익 속에 개인의 이익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서장>에 나오는 ‘본지풍광’, ‘본래면목’, ‘진공묘지’ 이런 단어들은 모두 중도를 표현한 것이며, 자신의 어려움이나 불행이 있더라도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거나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스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싫어하면 남도 나를 싫어하게 됨을 자각하고 나의 행복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치를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봉은사

우리는 절에 무엇을 하러 올까요. 법회를 왜 듣습니까. 불교를 왜 믿습니까. 절에 오는 것도, 법회 듣는 것도, 불교를 믿는 것도 모두 중도를 깨닫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서장>에서 오도 범룡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도는 유심으로도 구할 수 없다.’



고우 스님은 ‘중도’의 삶을 강조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진면목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구축한 그 모습대로 돌아간다면 개개인도 절로 행복합니다. 국가 지도자의 형인이 요즘 신문 지상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가만히 보면 역대 정권 말기마다 형인들이 안 좋은 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형님 뿐만 아니라, 매 정권 말기마다 친인척들이 여론에 오르내립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 본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그 본래 존재를 망각하고 착각에 빠져 살다보니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일어나는 이 일을 후임정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조심하고 안 그래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 욕심이 무엇인지, 그 욕망이 너무나 커 앞 정권에 일어날 일을 까맣게 잊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크고 작고 또 모양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에서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 재세시 당시 인도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은 인류가 잘 살고 모든 개개인이 잘 살려면 본래 자기 존재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수행을 통해 밝은 빛을 전하는 승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후 2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승가공동체가 부처님 당시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지’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승가공동체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중들이 스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본래 자기 존재 원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와 관련된 제도도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밖에서 외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법회에 오신 재가불자들이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모두들 불교 잘해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고심이 많 습니다. 조용히 나 혼자 수행이나 할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도 범룡 스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래 자기 존재의 원리를 찾는 것을 ‘중도’로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이 중도를 ‘유심으로 강구할 수 없다’ ‘무심으로 가히 얻을 수 없다’ ‘말로써도 나아갈 수 없고, 침묵으로써도 가히 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본래 존재 망각하니 욕망에 지배

개인의 이익 탐하면 결국 손해 수행하면 공익 우선돼

있다. 없다. 내가, 네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원적인 사고를 하는 한 절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원적인 사고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중도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손자가 물에 빠진 것을 건지려고 물에 들어가는 할머니의 마음이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머니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도 끊고 마음도 끊고 침묵조차 끊으면 생각이 끊깁니다. 범부님, 성인이니 하는 것 모두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도를 깨닫게 되면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에 대한 것을 우선하게 됩니다. 지금 정권 말기 문

제되는 분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 안에 개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욕망으로 무리하게 개인의 이익만을 탐하다 보니 결국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전체를 생각하면 절로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면 개인 이익도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며 된다 하더라도 괴로운 이익이 됩니다.

이원적 사고에서 중도로 돌아가는 것은 관계(關係) 화상의 일화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화상은 수행을 하다 임제 스님을 찾아 갔습니다. 임제 스님은 관계 스님이 저 멀리서 찾아오자 멀리서 다가갈

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관계 스님은 이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임제 스님도 그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 스님도 준비가 돼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나라고 전제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때 내버리고 그 자리에 중도로 대신해야 합니다.

‘있다 없다 말 침묵조차 아니면서 그 것인 그 자리’를 관계 화상이 준비 된 것을 보고 임제 스님이 멸살할만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중도에 기반을 두어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읽으십시오. 또 <금강경>에 나오듯이 상없는 봉사를 열심히 해 보십시오. 나

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 임제 스님 같은 도인을 만나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수행하다 깨달는 수도 있습니다.

중도를 이해해 수행해 나가는데 깨달음에 가까워지면 깨달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이전 좀 쉬어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는 깊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심자는 그저 쉬엄이 정진해 깨달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조차 참선, 염불 등 수행을 통해 없애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 없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욕망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경쟁마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식당 주인 일화입니다. 식당 주인이 법회 때마다 장사가 잘 안되며 잘되는 방법을 일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님을 은인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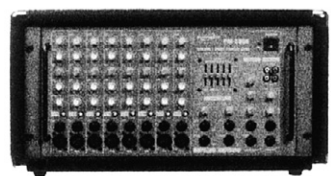
손님을 욕망으로 보면 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아’로 보면 손님이 은인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주인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은인으로 대합니다. 자기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밥먹여 주는 사람들로 말합니다. 그러면 ‘어서오십시오’ 말 한마디에도 거기에 담긴 감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느낍니다. 식탁 다루는 것도 다르고 반찬 놓는 것도 다르다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 좋은데 장사가 안 될 리 있겠습니까?

그 식당 주인이 한 달 만에 장사가 너무 잘된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는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없어지는 돈은 매년 27조원이라고 합니다. 중도를 체득해 개개인이 산다면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없습니다. 아니 값으로만 매길 수 없겠소. 중도를 깊이만 인식을 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며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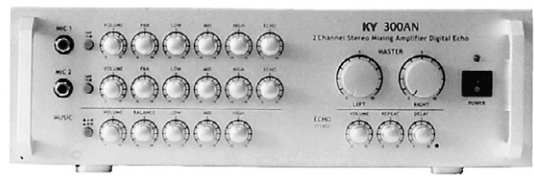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적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빠-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위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